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12.(수) 12:00
(지 면) 2026. 8.13.(목) 조간

과장도 주무관도 'AI 개발자'로 'AI 정부 실험실' 한 달 만에 405개 실험

- 공공 GitLab 가입자 천명 돌파, 실험 중 189개 공개...공직사회 AI직접 개발·공유 확산
- 보고서 작성, 반복 업무 자동화 등 공무원이 현장 아이디어 직접 구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정부 실험실'의 공공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 가입자가 운영 한 달여 만에 천명을 넘어섰으며, 총 405개의 실험 프로젝트가 등록·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AI 정부 실험실'은 공무원이 인공지능 코딩 도구를 활용해 현장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고, 개발한 코드와 경험을 공공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를 통해 공유·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개발·실험 공간이다.

이러한 개발 환경을 바탕으로 중앙 부처 과장부터 지방정부 주무관까지 소속과 직급에 관계없이 다양한 공무원이 참여해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와 도구를 직접 만들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무원의 직접 개발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과제 절반 이상 공개, 소속·직급 넘은 공유와 협업 생태계 조성

특히 실험실 전체 과제 중 189개 과제가 공공 개발 산출물 저장소(GitLab)에 공개돼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도 과제 내용과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거나 후속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개별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범정부 차원의 공유·협업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이 탄탄히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실험실에는 기관과 직급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정환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이 49건, 국립전파연구원 김동훈 연구사가 26건, 행정안전부 정준우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이 21건, 김해시 AI정책과 박성복 주무관이 16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류승인 주무관이 13건의 실험 과제를 추진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는 전문 개발자 중심의 대규모 정보화 사업과 달리, 업무를 가장 잘 아는 현장 공무원이 작은 기능부터 빠르게 만들고 시험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행정 혁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고서 작성부터 반복 업무 자동화까지, 행정 현장 맞춤형 도구 속속 등장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분야와 형태도 다양하다. 보고서 작성과 올바른 언어 사용부터 반복 업무 자동화, 메모 및 할 일 관리까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은 보고서·회의록 등 부서 자료를 공공 GitLab에 표준화해 축적하고, AI가 이를 자동 분류·요약해 자료 검색과 보고서 초안 작성에 활용하는 지식관리 체계를 실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공공인공지능혁신과 정준우 과장이 개발 중인 ‘온AI Work’는 자연어로 업무 내용을 입력하면 공무원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정책 판단에 집중하도록 돕는 AI 업무 도구다.

국립국어원 김소희 연구사가 개발하고 있는 ‘한국어 규범 조언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의 한국어 규범과 표현을 점검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문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김동훈 연구사가 만든 ‘업무 매크로 도구’는 화면과 키보

드·마우스 입력을 기록·재현해 자료 입력과 시스템 조회 등 반복업무를 자동화 한다.

조달청 우성균 주무관이 개발하고 있는 ‘지능형 메모 애플리케이션’은 업무 중 떠오른 내용을 빠르게 기록하고, 입력된 메모를 자동 분류해 업무와 할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AI 정부 실험실」에서는 공무원이 일하면서 느낀 불편과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빠르게 구현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안전한 개발을 위한 ‘업무 지침’ 제정 및 정식 서비스 연계 지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직접 개발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품질 및 산출물 관리, 업무 활용 절차 등을 담은 ‘공무원 직접 개발 업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실험실에서 검증된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안·품질 검증과 업무망 내 운영을 지원하고, 정식 대민 서비스나 기관 공통 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화 사업 절차와 연계하여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AI 정부 실험실의 가장 큰 성과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소속과 직급에 관계없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한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가 공개와 공유를 통해 기관의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고, 범정부가 함께 활용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원갑 (044-205-2702)
		담당자	사무관	박인창 (044-205-2489)

‘온AI Work’ 근거·참고 자료를 활용한 보고서 생성 및 한글 형식(HWPX) 편집 모드

□ 한국어 규범 조언 도구

가

'온라인가나다'식 답변기 (검토용 데모 버전)

우리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입력하시면 답변 초안을 근거와 함께 보여 드립니다.

이곳은 어문 규범과 어법, 사전 내용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법령·규정의 해석, 시험 문제의 정답 판정처럼 소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나 분량이 많은 교정·교열 요청에는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여러 줄로 쓰셔도 됩니다.

Ctrl + Enter 를 눌러도 질문이 전송됩니다. 사전과 규범을 직접 찾아본 뒤 답하므로 보통 15~25초 걸립니다

답변 받기

△ 질문 내용은 답변 작성을 위해 외부 인공지능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델 **Gemma 4 31B** · OpenRouter 경유 · 소스 저장소(GitLab)

'한국어 규범 조언 도구' 메인 페이지 - 우리말에 대한 질문을 인공지능으로 답변

https://lang-observatory.com/test_trial (로그인없이 일 20회 이용가능)

'왐지'와 '왐지' 중 어떤 표현이 맞나요?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세요.

근거 7 건

틀 중 하나만 맞춤 · 확인 중만

신뢰도 문맥·판단 · 표기나 띄어쓰기가 맞는지 묻는 질문

● 답변 초안 — 검토하신 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왐지'와 '왐지' 중 어떤 표기가 바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 '왜 그런지 모르겠.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의 부사는 '왐지'로 적는 것이 바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왐지'를 검색하면 '왐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말샘에서도 '왐지'에 대해 '규범 표기는 왐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왐지'는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붙여 씁니다. 따라서 '왐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표기가 맞는 이유에 대한 설명', '해당 표기가 맞는 이유에 대한 설명' 부분은 사전과 어문 규범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 이곳의 답변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 사항: 사전·규범 원문 그대로 · 외적 기술·인공지능이 아닌 안내 문구 · 표시 없는 글자 = 인공지능이 스스로 쓴 설명 — 이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다들들 때 참고하실 점

반드시 확인

모달이 근거에 없는 초안을 인용하여 해서 코드가 뺏습니다.

→ 코드가 순연 부분이나 모달 원문을 의심하고 근거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30.30

7건 이런 근거를 찾았습니다

✓ 표준국어대사전·우리말샘 조회 '왐지' → 맞춤

참기

'왐지' 검색 결과 — 표준국어대사전 1건, 우리말샘 3건
※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 표준국어대사전 '왐지' (고유어, 부사)

[q1] 발음: 왐지
[q2] 1. [부사] 왜 그런지 모르겠.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용례: 그 이야기를 듣자 왐지 불길한 여감이 들었다.
용례: 아내는 왐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우리말샘 (참고용 · 보통 근거)

◆ 우리말샘·보통 '왐지' (고유어, 품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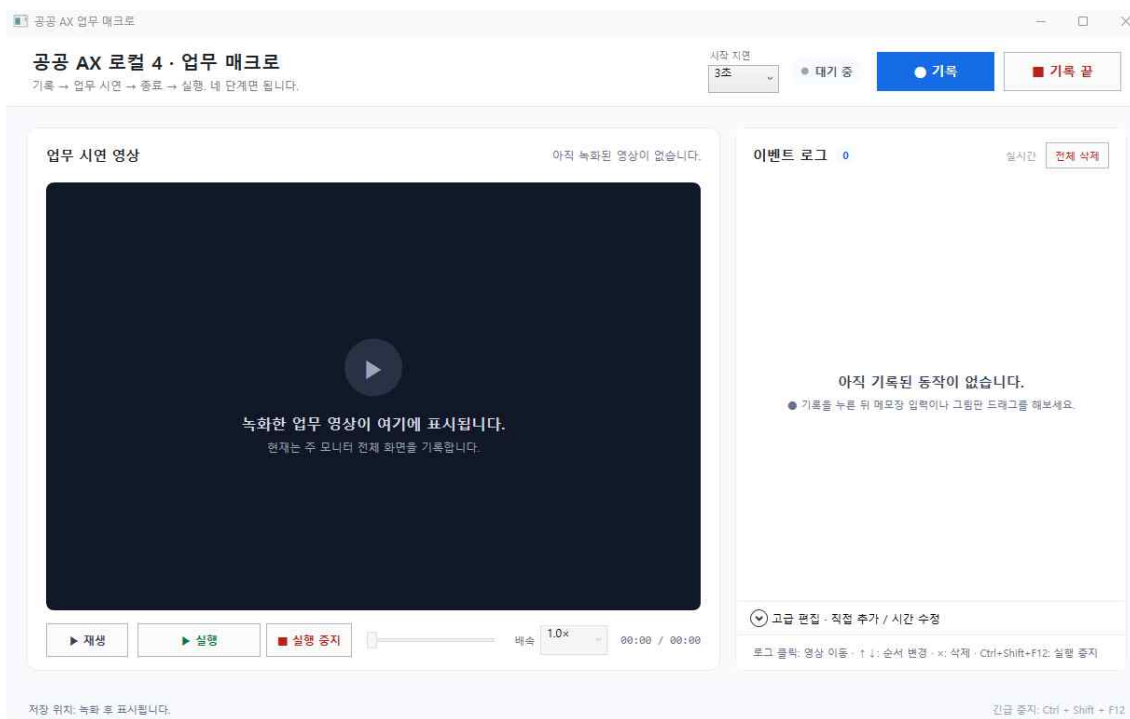
[q3] 1. [품사 없음] [음악] 김해광 외 2인 작사·작곡의 대중가요. 2022년에 발표된 이석훈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다.

◆ 우리말샘·보통 '왐지' (고유어, 품사 없음)

[q4] 1. [품사 없음] [음악] 이승호 작사, 박해운 작곡의 대중가요. 2007년에 발표된 표지선의 앨범에 수록

'한국어 규범 조언 도구' -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 게시판 형식에 기반한 답변 제공

□ 업무 매크로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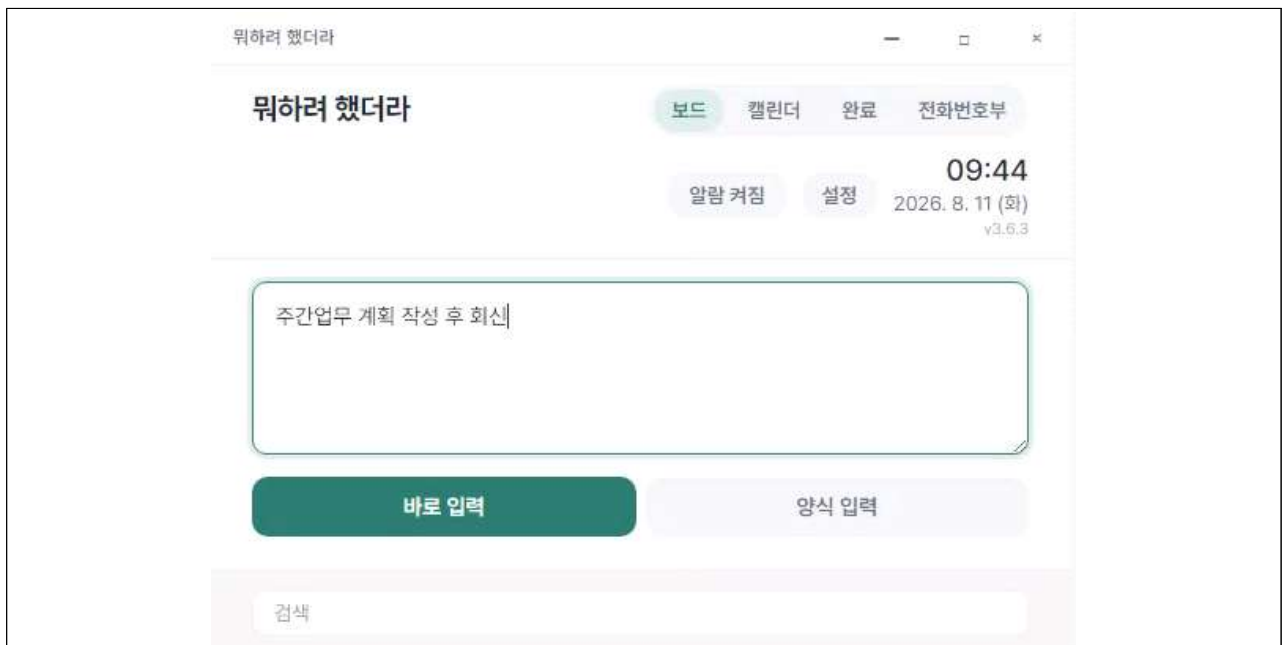


‘업무 매크로 도구’ 메인 화면 -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화면으로 기록
<https://gitlab.aigov.go.kr/tyui22/gonggong-ax-local-4> 에서 파일다운로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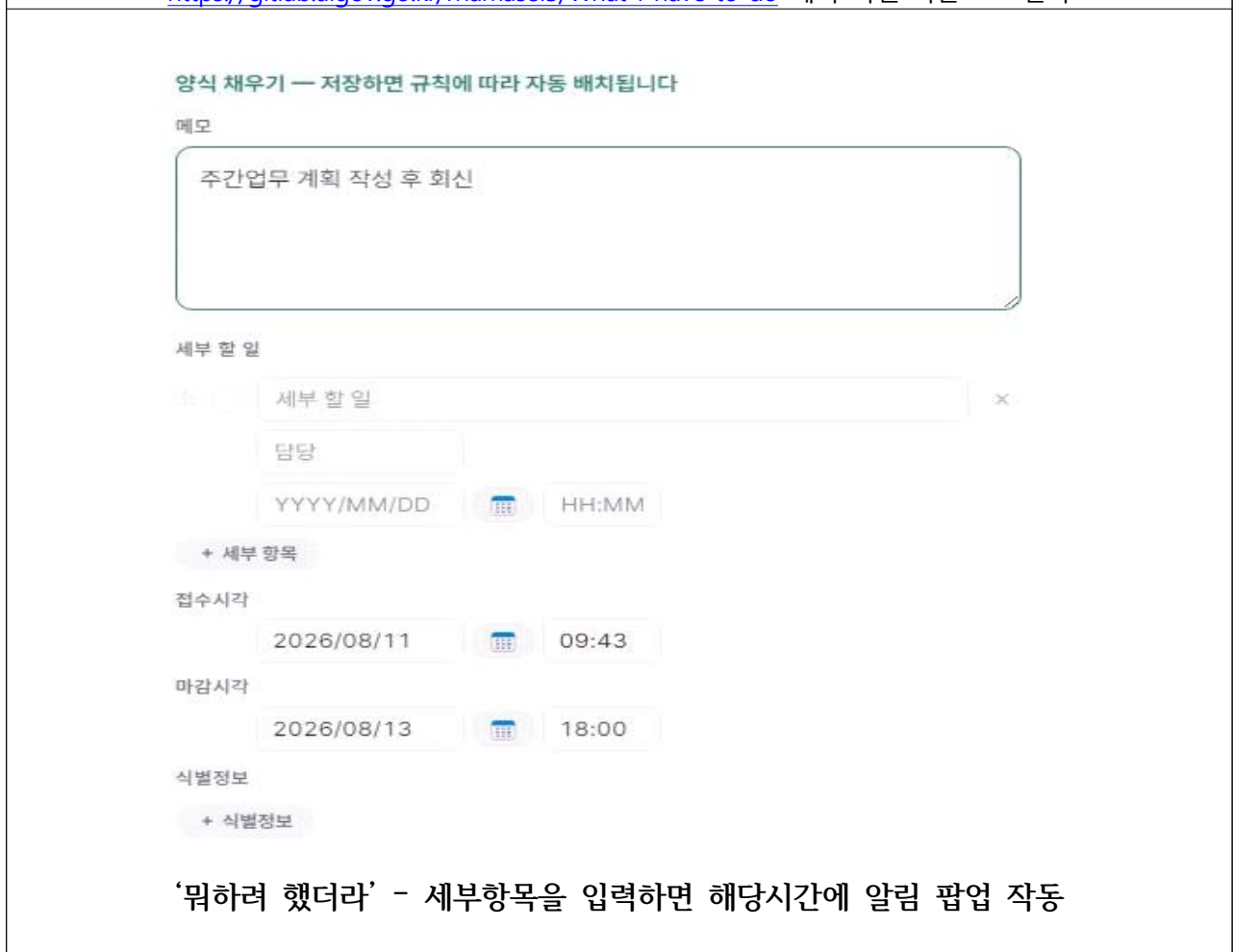
‘업무 매크로 도구’ - 사용방법 안내 (기록→시연→저장→활용)

□ 지능형 메모 애플리케이션 - 뭐하러 했더라



‘뭐하러 했더라’ 메인 화면 - 할 일 및 일정 입력 화면

<https://gitlab.aigov.go.kr/rhamasel3/What-I-have-to-do> 에서 파일 다운로드 설치



‘뭐하러 했더라’ - 세부항목을 입력하면 해당시간에 알림 팝업 작동